

인지과학과 철학적 탐구*

노양진 (전남대학교)

1. 머리말

오늘날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전반적 지적 탐구에 새로운 지평도를 제시한다. 심리학, 언어학, 철학, 인류학, 신경 과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경험 과학 분야의 통합적 탐구 형태인 인지과학의 핵심적 탐구 대상은 '정신'(mind)이다. 그러나 인지과학은 인간의 정신이 독립적 영역을 갖는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두뇌'(brai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활동이거나 그 활동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정신에 관한 과거의 탐구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터너(M. Turner)는 이러한 탐구의 중요성을 들어 "다가오는 시대는 인간의 정신이 발견된 시대로 기억될 것"¹⁾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물론 이러한 '정신의 발견'이 완결된 형태가 아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정신 활동의 근거가 우리의 신체 활동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플라톤을 거쳐 데카르트에 의해 새롭게 정형화되었던 신체/정신 이원론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지과학적 탐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 이 논문은 1998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Mark Turner, *Reading Minds: The Study of English in the Age of Cognitive Sci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vii.

써 철학적 논의에 확장시켜 가고 있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의 견해를 따라 인지과학이 오늘날 철학적 논의에 불러오는 몇몇 중요한 귀결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물론 인지과학의 성과가 하나의 절대적이고 완결적인 결론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발견들은 과거의 몇몇 중요한 철학적 가정들이 공허하거나 그릇된 것임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세대 인지과학'이라고 불리는 인지과학의 새로운 흐름은 단순히 몇몇 철학적 이론들의 부분적 수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철학적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제2세대 인지과학의 중요한 발견인 '신체화된 정신', '인지적 무의식', '은유적 사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 철학적 함의들을 검토할 것이다.²⁾

이러한 논의는 전통적인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근원적 '해체'(deconstruction)의 성격을 띠게 된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정신 개념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던 철학적 탐구 주제들이 공허하거나 그릇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가 미래의 철학적 탐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며, 허무주의적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체험주의적 탐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해체론들과 철학적 길을 달리한다. 대신에 체험주의는 지속적인 경험 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원초적 조건과 경험의 구조에 대한 좀더 나은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이 오늘날 철학적 탐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객관주의와 허무주의적 해체주의 사이의 이분법적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의 지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제안이 아닐 수 없다.

2) 제2세대 인지과학의 특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특히 6장 참조.

2. 제2세대 인지과학

1970년대 초 인지과학의 출발과 함께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주도적 경향은 ‘인지주의’(cognitivism)이다. 인지주의는 분석 철학이라는 전반적 흐름을 사로잡았던 태도의 하나이며, 특히 의미와 언어에 관한 논의에서 명제적 인식과 진리 조건적 의미를 중심적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인지주의는 우리의 정신을 하나의 독립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초기 인공 지능 이론, 정보 처리 심리학, 형식 논리, 생성 언어학 등이 인지주의라는 가정과 적절하게 부합하는 탐구 방식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마치 컴퓨터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정신에 대한 법칙적 탐구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에서 정신은 하나의 추상적 기능이며,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 요소는 인지에 아무런 직접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인지주의를 거부하는 증거로 제시된 정신의 새로운 특성들은 우리의 전반적 사고와 경험이 신체적 요소에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상상적 기제들, 즉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 ‘심적 영상’(mental imagery), ‘원형’(prototype) 등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레이코프와 존슨(G. Lakoff and M. Johnson)은 이러한 전환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지과학적 흐름을 초기의 흐름과 대별해서 ‘제2세대 인지과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1) 정신은 신체화되어 있으며, 2) 사고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3) 추상적 개념들은 대부분 은유적이라는 세 가지 중심적 주제에 의해 특징지어진다.³⁾

레이코프와 존슨의 이러한 견해는 체험주의라는 새로운 철학적 흐름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견해에 대한 바렐라(F. Varela) 등의 시각이다. 바렐라 등은 인지과학의 발전

3) 같은 책, p. 3 참조.

단계를 ‘인지주의’(cognitivism), ‘창발’(創發, emergence), ‘발제’(發製, enactive)의 세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레이코프와 존슨의 이러한 견해를 한데 묶어 ‘창발’의 단계로 규정한다.⁴⁾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다소 자의적으로 보인다. 바렐라 등은 ‘발제’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 이름은 인지는 이미 주어진 세계에 대한 이미 완성된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한 존재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마음과 세계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점차 강해지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⁵⁾

이러한 설명은 “마음과 세계가 공동으로 마음과 세계를 구성한다”⁶⁾는 퍼트남(H. Putnam)의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의 기치를 떠올리게 한다. 바렐라 등이 인지과학의 성과를 불교 사상과 접맥시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발제’라는 인지과학의 새로운 단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는 ‘창발’의 단계에서도 확장된 형태의 논의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두 견해 사이의 미묘한 차별성의 문제를 접어둔다면 창발론과 발제론은 적어도 초기의 ‘인지주의’를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레이코프와 존슨은 이처럼 새로운 인지과학적 발견들로 인해 철학은 더 이상 과거의 것과 같을 수 없으며, 이성의 관련된 측면들에 대한 이천 년 동안의 선험적 사변은 끝났다고 말한다.⁷⁾ 이러한 주장은

4) 바렐라·톰슨·로쉬,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 석봉래 역 (서울: 옥토, 1997), 43쪽의 표 참조. 물론 바렐라 등은 자신들의 견해를 ‘발제’(發製, enaction)의 단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발제’라는 낯선 용어는 석봉래의 역어이다.

5) 같은 책, 46쪽.

6) H.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김효명 역 (서울: 민음사, 1987), 7쪽(xi, 괄호 안은 원문의 쪽수)

전통적인 사변적 이론들을 향한 강력한 해체의 태도이다. 그것은 과거의 이론들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들을 지탱해 주는 기본적인 가정들에 대한 급진적인 거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변적 탐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탐구의 방향을 열어 두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들은 데리다(J. Derrida)나 로티(R. Rorty)에게서 보이는 해체론적 태도와 길을 달리 한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체험주의적 탐구가 제시하는 철학적 함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신체화된 정신

새로운 인지과학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수용하는 것은 '신체화된 정신'(embodied mind)이라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우리의 정신 활동이 몸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몸에 의해 제약된다고 말한다. 이 주제에 따르면 신체적 요소들에 대한 탐구가 없이는 우리의 정신에 관한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체화된 정신'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만은 아니며, 이미 듀이(J. Dewey)나 메를로 폰티(M. Merleau-Ponty)의 철학에 중요한 방식으로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체험주의는 인지과학이 제공하는 경험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좀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 주장을 지지한다. 특히 데카르트적 정형화를 거쳐 급세기 전반을 사로잡았던 분석 철학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던 정신에 관한 몇몇 가정들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때 체험주의의 주장은 더욱 더 강력한 입지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듀이에게 있어서 '신체화된 정신'(embodied mind)이라는 주제는 그의 저작을 통해 매우 포괄적으로 암시된다. 그는 전통적인 이원론이 수많은 것들은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나누었지만, 사실상 이 두 영역 사이에 이원론자들이 가정했던 것과 같은 '단절'(breach)이 없

7) Lakoff and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p. 3.

으며, 대신에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듀이는 이것은 '연속성의 원리'(principle of continuity)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마치 하나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어 가는 과정에 단절이 없듯이 우리의 경험에도 단절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듀이는 우리의 정신적 활동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창발'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원리는 그 성격상 구체적인 진술이 어렵다. 듀이 자신은 연속성의 원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주의적(naturalistic)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사용된 의미는 한편으로는 탐구의 작용과 생물적 작용과 물리적 작용 사이에 연속성의 단절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속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성적 작용들이 유기적 활동에서 생겨나지만 그것이 생겨난 근원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 자연주의적 논리의 기본적 가정은 하위적인(덜 복합적인) 활동 내지는 형태와 상위적인(더 복합적인) 것 사이의 연속성이다. 연속성의 개념은 자체 설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단절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것들의 단순한 반복을 배제한다. 즉 그것이 전적인 단절이나 괴리를 배제하듯이 '상위'를 '하위'로 환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유기체의 발아에서 성숙까지의 성장과 발전은 연속성의 의미를 예증해 준다.⁸⁾

듀이가 말하는 연속성은 마치 안개와 같다. 과거의 철학이 설정했던 모든 구분들과 경계들을 흐리게 만들지만 그 자체는 무엇인지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듀이가 제시하는 연속성의 원리는 그 자체로 적극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것들에 대한 부정적 진술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가정하는 정신은 그 자체로 독립적 '실체'이다. 몸은 우연적으로 정신과 결합되어 있을 뿐 정신의 존립과 작용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 때문에

8) John Dewey, *Logic: The Theory of Inquir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 12*, ed. Jo Ann Boydston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6), pp. 26, 30. (고딕은 필자의 강조)

진지한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신의 핵심적 기능인 '이성'은 따라서 '추상적'이며 '탈신체화'(disembodied)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된 정신은 우리의 신체적 활동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따라서 정신 스스로 존립할 뿐만 아니라 자체의 작용 원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정된 정신의 문제점은 그 출생뿐만 아니라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라일(G. Ryle)의 지적처럼 데카르트적 정신은 '기계 속의 유령'⁹⁾과 같은 어떤 것이다. 듀이는 이러한 난점이 근원적으로 이원론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존슨의 새로운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듀이의 이러한 철학적 기조에 대부분 합치한다. 그러나 존슨은 정신의 신체화를 설명하기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논의를 제시한다. 그가 새롭게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영상 도식'(image schema)이다. 영상 도식은 소수의 기본 요소들로 구성된 인식의 거칠고 포괄적인 패턴이다. 영상 도식은 매우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면서 우리의 지각적 차원과 개념적 차원의 전반적 이해의 근거이면서도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¹⁰⁾ 따라서 영상 도식은 비명제적이며 전개념적인 구조로서 무수히 많은 유사한 개념화의 근거나 틀로 작용하며, 우리의 사고는 이러한 도식들을 바탕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존슨은 주로 언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그릇」(CONTAINER), 「경로」(PATH), 「중심-주변」(CENTER-PERIPHERY), 「균형」(BALANCE) 등의 도식들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¹¹⁾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식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체적 활동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는 존슨의 주장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환경—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안에서 지속적으로 물

9) G. 라일, 『마음의 개념』, 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4), 2장 참조.

10)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28-30 참조.

11) 같은 책, 3-5장, 특히 126쪽 참조.

리적 포함(containment)을 경험한다. 우리는 방, 의복, 차량, 그리고 무수한 종류의 경계지어진 공간의 안 또는 밖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물건들을 다루면서 그것들을 그릇(컵, 상자, 깡통, 자루 등) 안에 집어넣는다. 이 각각의 경우에 반복적인 공간적·시간적 구조화가 있다. 달리 말하면 물리적 포함에 대한 전형적인 도식들이 존재한다.¹²⁾

우리의 인식은 이러한 도식들을 토대로 은유나 환유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로 정교화되고 확장된다. 존슨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그 활동이 우리의 모든 인식의 궁극적 뿌리이다. 정신은 신체화되어 있는 것이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론들, 특히 ‘객관주의’의 범주에 드는 이론들은 우리의 개념과 사고를 우리의 몸과 무관한 추상적 존재로 가정함으로써 신체적 요소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해 왔다. 그리고 그 귀결로 드러나는 것은 신체/정신, 사실/가치, 이성/감성 등의 이분법적 구분들이다. 그래서 존슨은 자신의 철학적 작업을 “몸을 마음 안으로 되 돌려놓는 것”¹⁴⁾이라는 기치로 요약한다.

2) 인지적 무의식

제2세대 인지과학의 탐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성과는 ‘인지적 무의식’(the cognitive unconscious)의 발견이다. 인지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고의 95% 정도가 사실상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¹⁵⁾ 말하자면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이 영역이 우리

12) 같은 책, p. 21.

13) 레이코프와 존슨이 말하는 은유적 투사라는 방식을 좀더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마도 은유가 물리적 실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추상적 실재에 대한 경험으로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포괄적인 주장은 좀더 상세하고 확장된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새로운 추상적 실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은유 이외에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은 여전히 생명력 있는 추정이다.

14) 같은 책, p. xxxvi.

15) Lakoff and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p. 13.

의 의식의 영역을 구조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이트(S. Freud)가 말하는 ‘억압된 것’으로서의 무의식이 아니라, “인지적 의식의 저변에서 작용하면서, 의식이 접근할 수 없으며, 또한 포착하기에는 너무 신속히 작용한다”¹⁶⁾는 점에서 무의식적이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듣는 것과 상관되는 기억을 되살리는 것, 일련의 소리를 하나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 모국어의 수많은 문법적 구성에 따라 한 문장에 구조를 부여하는 것,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맥락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문장 전체를 의미론적이고 화용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말해진 것을 대화와 관련 있는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것 등은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 활동이라는 점에서 무의식적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작용 과정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무의식은 때때로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의식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의식이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¹⁷⁾ 그러나 우리가 그 구체적인 작용 방식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용이 실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그것이 의식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의식적 활동에 개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지 작용의 일부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물론 존슨과 레이코프는 이러한 무의식을 ‘인지적’(cognitive)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분적으로 용어상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¹⁸⁾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인지주의’(cognitivism)라고 부르는 초기 인지과학의 입장에서는 개념적이고 명제적인 구조와 진리 조건적 의미만을 배타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이 관점에서 무의식

16) 같은 책, p. 10.

17) 같은 책, p. 11.

18) 같은 책, p. 12 참조.

은 '인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세대 인지과학이 의미하는 '인지'는 우리의 언어, 의미, 개념 체계의 규정, 이성 에 관련되는 모든 정신적 작용과 구조들이 포함된다.

인지적 무의식의 발견은 순수한 철학적 반성을 통해 우리의 정신에 관해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적 가정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내면적 작용 방식에 대해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제한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은 과거의 철학자들이 흔히 의지했던 '선험'의 영역도 '초월'의 영역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적 차원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체험주의가 받아들이는 넓은 의미의 경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사고 방식을 규정하는 '개념 체계'의 대부분은 인지적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무의식은 우리의 개념화와 경험의 모든 측면들을 구조화하는 '숨겨진 손'(hidden hand)¹⁹⁾으로 작용한다.

3) 개념들은 은유적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통해 은유가 단순히 파생적이고 비일상적인 언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한다.²⁰⁾ 이들은 주로 언어적 증거를 바탕으로 은유가 독립적인 언어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존슨은 특히 '투사'(投射, projection)를 은유적 사고의 중심적 작용으로 제시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흔히 A라는 경험 영역의 '관점에서'(in terms of) B라는 경험 영역을 이해하는데, 이 때 우리는 B라는 영역을 은유적으로 이해한다. 이 때 우리는 A라는 영역의 경험을 B라는 경험 영역에 '투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

19) 같은 책, p. 13.

20) G. 레이코프·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역 (서울: 서광사, 1995) 참조.

부분의 개념들은 이러한 은유적 방식으로 투사된 것들이며,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추상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은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단어의 차원, 즉 개별적 개념의 차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개념 체계의 차원에서도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은유들은 체계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와 이해의 방식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랑은 여행」(LOVE IS A JOURNEY) 은유를 보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보라.

우리는 **갈 길이** 달라.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사랑의 **미로**
 사랑의 **기로**에 서서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 관계는 어디쯤 **와 있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여행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 실례들은 상호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은유적 표현들이 아니라, 체계성을 형성한다. 레이코프는 이 다양한 표현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로 ‘여행’ 영역이 ‘사랑’ 영역에 ‘사상’(寫像, mapping)되어 있다는 점을 든다. 즉 이 두 영역 사이에는 ‘은유적 대응’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여행자’에, ‘관계’는 ‘여행수단’에, ‘사랑의 목표’는 ‘여행이 목적지’에 각각 대응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념 체계의 고정된 부분, 사랑이라는 관계를 개념화하는 우리의 관습적 방식들 중의 하나이다.”²¹⁾

21) Lakoff,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208.

한편 레이코프와 존슨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이 근원적으로 은유적이라는 주장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전통적으로 '철학적'이라고 불려왔던 대부분의 이론들이 특정한 은유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²²⁾ 예를 들면 이들은 데카르트(R. Descartes)의 인식론적 구도가 「아는 것은 보는 것」(KNOWING IS SEEING)이라는 기본적인 은유와, 그것과 관련된 무수한 은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다.²³⁾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아는 것이라는 경험을 우리의 신체적 활동인 '보는 것'이라는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은유들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데카르트적 은유가 정신에 관해 우리의 실제 경험과 사고로부터 괴리된 독특한 견해를 구성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견해의 주된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²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유일한 것은 이성적 사고 능력이다.

사고는 본성적으로 탈신체적(disembodied)이다.

사고의 외부 세계와 독립적으로 관념들의 형식적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관념들은 수학의 형식적 기호들처럼 작용한다.

어떤 관념들은 본유적(innate)이며, 어떤 것들은 외부의 실재에 대한 내적 표상들이다.

우리의 관념들과 그 작용 방식들에 대한 엄밀한 탐구를 통해 정신에 관해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상상력, 감정, 지각, 몸의 생물학적 본성 등은 정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데카르트적 견해는 오랫동안 정신에 관해 서구적 이해 방식에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해 왔지만, 제2세대 인지과학의 경험적 발견들은 그러

22) Lakoff and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16-24장. 여기에서 레이코프와 존슨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영향력 있는 철학적 이론들이 특정한 은유들, 또 그것에 근거를 둔 통속 이론(folk theory)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23) Lakoff and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19장 참조.

24) 같은 책, p. 408 참조

한 견해가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레이코프와 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다만 데카르트적 견해에 국한되지 않고 서구 지성사를 특징짓는 대부분의 중요한 이론들에서 드러난다.

새로운 은유 체계가 새로운 이해의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실상 정신에 관한 모든 이론은 본성적으로 은유적일 수밖에 없다.²⁵⁾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은유적으로 구성된 과거의 이해 방식들이 경험적 해명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론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치 하나의 '사실'에 관한 주장임을 자처하게 되며,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이 지적하는 것처럼 '철학적 혼동'이다.²⁶⁾ 나아가 그러한 혼동은 단순히 혼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흔히 우리의 경험과 원초적 조건들에 대한 '소외'와 '억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해체론적 이론들이 과거의 철학적 이론들에 관해서 폭로하려고 시도하는 핵심적 내용이다.

사실상 레이코프와 존슨의 분석은 주로 구체적인 언어학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오늘날 '해체'라고 불리는 급진적인 철학적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지점으로부터 이들이 취하는 철학적 방향은 해체적 전략과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적어도 데리다(J. Derrida)의 해체론은 철학적 이론이 은유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이론의 유용성과 정당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데로 나아간다.²⁷⁾ 그러나 철학적 이론들의 근거가 은유적이라는 해

25) 같은 책, p. 409 참조. 여기에서 레이코프와 존슨은 "정신에 관한 비은유적 이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의 은유 이론에 근거한다. 간단히 말해서 레이코프와 존슨의 견해에 따르면 추상적 대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은 물리적 경험을 그 추상적 대상에 '은유적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26) 이 문제에 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노양진, 「비트겐슈타인과 철학의 미래」, 한국철학회 편, 『철학사와 철학: 한국철학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하여』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참조.

27) 해체의 전략으로서 데리다의 은유론에 관한 상세한 해명은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특히 2부 4장 참조.

명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데리다처럼 근원적으로 이론화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결론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서 체험주의는 또 다른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철학적 탐구의 새로운 방향

체험주의는 철학적 탐구가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의 철학적 탐구에 초월적 관점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자연주의적'(naturalistic)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연주의는 모든 정신적 경험 또는 실재들이 물리적 경험 또는 실재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환원주의'(reductionism)를 거부하며, 한편으로는 과학이 완결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과학주의'(scientism)도 거부한다. 즉 이들은 우리의 경험은 환원 불가능한 은유적 방식으로 확장되며, 경험 과학은 결코 완결되지 않을 열려 있는 탐구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자연주의를 일찍이 듀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듀이는 우리의 경험적 탐구가 결코 완결된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적절한 지식의 모형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 안에서 철학적 탐구는 경험적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고도의 일반성'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본다.²⁸⁾ 이러한 듀이의 자연주의는 콰인(W. V. O. Quine)에 의해 좀더 다듬어진 표현을 갖게 되었는데, 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듀이와 함께 지식, 정신, 의미는 그것들이 관련을 갖는 동일한 세계의

28) Dewey, *Experience and Nature: The Later Works, 1925-1953, Vol. 1*, ed. Jo Ann Boydston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특히 1장 참조.

부분이며, 그것들은 자연 과학에 생명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경험적 정신으로 탐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선결 철학(prior philosophy)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⁹⁾

내 입장은 자연주의적이다. 나는 철학을 과학을 위한 선행적 예비 지식이나 기초 작업으로 보지 않고 과학과 연속적인 것으로 본다. 나는 철학과 과학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외재적 관점, 즉 제일철학은 없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에서는 현재 그럴듯한 모든 과학적 발견과 추측들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에 혼재히 사용된다.³⁰⁾

아마도 이러한 태도 안에서 철학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독자적 영역을 잃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근세의 인식론이 가정했던 확실성의 탐구로서 제일철학의 꿈은 무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철학은 모든 가정과 편견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특권적 위상은 거부된다. 여기에서 철학은 과학과 연속적인 탐구의 한 유형으로 간주됨으로써 철학을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무전제의 탐구로 간주하려는 철학자들에 의해 반역적 견해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주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악의적인 오해는 그것이 일종의 ‘과학주의’(scientism)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환원주의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자연주의’라는 말은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에 의해 훨씬 폭넓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판자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자연주의는 다만 인간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문화적 사유를 모두 과학적 지식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하는 유토피안자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주의가 반드시 그러한 귀결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스트로슨(P. Strawson)은 자연주의를 ‘관대한 자유주의적 자연주의’와 ‘엄격한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로 구분한다.³¹⁾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이

29) W. V. O.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 26.

30) 같은 책, pp. 126-27.

규정하는 자연주의는 후자의 '단한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체험주의는 우리가 존재, 언어, 의미, 선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적 관점을 설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자연주의적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체험주의는 과학적 탐구만이 최종적이고 완결된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과학주의'(science)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체험주의는 과학이 단일한 구조를 따라 일직선적으로 진보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경험 세계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의 안정적 특성을 믿는다. 한편 체험주의는 상위 경험이 하위 경험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원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열린 자연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체험주의가 경험 과학적 증거를 통해 강력한 설득력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험주의적 태도가 아무런 반론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경험 과학이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지며, 이러한 우월성은 우리의 실제적 삶을 통해 적절하게 증명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 과학적 지식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철학적 가정일 뿐이라는 요지의 반론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가 않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이러한 반론이 하나의 전제, 즉 오직 자율적이고 '순수한' 철학적 반성만이 비판적이거나 규범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철학적 반성을 제공하는 이성 자체가 신체화되어 있음을 들어 그 전제를 거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다시 이성 개념에 대한 철학적 가정 문제로 회귀되어 논의의 순환성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레이코프와 존슨이 그 대신에 이론의 두 차원을 구분함으로써 그러한 반론에 좀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이론들은 '해명(explication)의 차원과 '희망(desire)의 차원을 갖는다.

31) P. Strawson, *Scepticism and Naturalism: Some Varie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 37. Newton Garver, *This Complicated Form of Life* (La Salle, Ill.: Open Court, 1994), p. 271에서 재인용.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현상학적 해명의 차원에 접근해 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경험적 탐구가 우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탐구가 선행되지 않은, 또는 그것을 전적으로 간과하려는 철학적 희망은 무모한 환상이나 도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는 항상 불가피하게 우리를 넘어선 '도약(跳躍)'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도약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아니면 적어도 도달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종류의 도약이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도약을 수용하기만 하면 그 이후의 논의와 해명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탐구가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empirically responsible philosophy)³²⁾의 영역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탐구가 과연 현상학적 해명에 우선성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미래를 위한 희망적 투사에 우선성을 두어야 할 것인지는 논증 이전의, 철학적 태도에 속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권고를 따라 과연 무엇이 우리의 철학적 사유의 원초적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인식과 행위에 있어서 물리적·자연적 세계의 우선성을 거부하는 것은 '관점의 혼동'을 불러오는 무모한 사유의 모험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데리다의 지적처럼 서구의 형이상학은 자신의 출생지를 은폐함으로써만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었다.³³⁾ 데리다는 이 은폐를 폭로함으로써 형이상학의 은밀한 의도를 거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데리다는 자신의 날카로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데리다는 이러한 '해체'(deconstruction)라고 불리는 폭로와 거부 자체가 철학적 작업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데리다가 보여 주는 것처럼 은유론은 강력한 해체적 결론으로 나아가

32) 같은 책, 특히 pp. 551-52 참조.

33)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211-12 참조.

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철학적 결론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사고의 대부분, 나아가 대부분의 철학적 이론들이 은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데리다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은유적 사고 방식과 공존하는 우리의 삶의 구조에 대한 반성적 해명의 가능성이다. 체험주의는 그 은유의 구조와 조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경험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다고 보며,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탐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체험주의는 해체를 넘어서 철학적 대안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레이코프와 존슨은 인지과학과 철학의 지속적인 상호 대화를 권고한다.

과학이 진지한 것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철학적 정교화가 필요하다. 과학은 철학과 대안적 철학들과의 진지한 친숙성 없이 자기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이 제1세대 인지과학의 역사로부터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데, 거기에서는 분석 철학이 인지과학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시발적 관념에 침투해 있었다.

반면에 책임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철학은 관련된 지속적 과학적 탐구의 방대한 체계를 진지하게 직면하고 이해하지 않고서 단순히 정신, 언어, 그리고 다른 인간의 삶의 측면들에 관한 이론들을 자아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은 인간의 신체화와 인지의 실재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 만들기, 즉 서사들을 짜맞추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철학은 정신의 과학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³⁴⁾

인지과학적 성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의미, 사고, 개념 등에 관해 경험 과학적 탐구의 성과들은 인간인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철학의 위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말하자면 체험주의적 접근은 지금까지 철학적 이론들이 제공했던 수많은 개념들을

34) 같은 책, p. 552.

급진적인 방식으로 해체한다. 그래서 체험주의는 우리의 철학적 시각을 “동요시키는 동시에 해방시키는”(both unsettling and liberating)³⁵⁾ 견해이다. 그리고 그것은 데리다의 해체만큼이나 급진적이며 근원적이다. 그러나 체험주의의 그러한 해체가 위협적 허무주의를 예고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조건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새로운 탐구에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맺는 말

인지과학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금세기 후반의 우리의 전반적 지적 지평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탐구가 다음 세기의 지적 흐름을 선도할 것이라는 터너의 지적은 지나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 성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경험 과학적 지식이 철학적 논의에 어떤 형태로든 수용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수천 년 동안 철학이 추구해 왔던 ‘확실성의 탐구’라는 과제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어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과학’(science)은 논리 실증주의의 가열된 논의를 거쳐오면서 더 이상 완결성을 가정하지 않게 되었다. 과학적 지식의 우선성은 우리의 경험적·물리적 세계를 해명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과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물리적 세계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안정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주어진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 자신의 원초적 조건들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선택된 것들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

35) Johnson,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1.

다. 이러한 유형의 지식 개념의 수용은 과거의 철학적 탐구가 추구해 온 '확실성'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요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인지과학의 성과는 그 자체의 크기보다는 과거의 이론들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함의라는 측면에서 더 심중한 것이다.

아마도 인지과학의 발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식의 주체인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절대'나 '완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에게 경험 과학적으로 주어진 지식은 결코 과거의 철학이 지향했던 '완결성'이나 '절대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반드시 아무런 지식도 가능하지 않다는 허무주의적 회의주의로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인지 능력에 적절한 크기'의 지식—단지 '철학적 희망'이 아니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 과학적 지식은 전통적 철학이 설정했던 것과 같은 '절대'나 '확실성'이라는 기준에 미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적절한 정도의 '신뢰성'(relia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물리적 세계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상대적 우월성을 갖는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유형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는 철학은 경험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확실성'의 모형을 제시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귀결로 드러난 것은 '형이상학적 위안' 아니면 '회의주의'라는 불청객이다. 우리는 오늘날 형이상학적 초월을 통한 지식에의 도달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철학적 열망'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눈뜨게 되었으며, 그러한 초월의 포기가 반드시 회의주의라는 비관적 귀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제2세대 인지과학은 인간인 우리에게 적절한 지식의 모형이 무엇인지에 관해 과거의 모형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에 이르르게 해준다.

참고 문헌

- A. I. 골드먼. 『철학과 인지과학』. 석봉래 역. 서울: 서광사, 1998.
-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 노양진. 「비트겐슈타인과 철학의 미래」. 한국철학회 편. 『철학사와 철학: 한국철학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하여』.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 「체험주의의 은유 이론」. 한국분석철학회 편. 『언어, 표상, 세계』. 서울: 서광사, 1999.
- G. 라일. 『마음의 개념』. 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G. 레이코프·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역. 서울: 서광사, 1995.
- 바렐라, 톰슨, 로쉬.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 석봉래 역. 서울: 옥토, 1997.
- H.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김효명 역. 서울: 민음사, 1987.
- 한국분석철학회 편. 『철학적 자연주의』.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Derrida, Jacques.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Dewey, John. *The Experience and Nature: The Later Works, 1925-1953, Vol. 1*. Ed. Jo Ann Boydston.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 *Logic: The Theory of Inquiry: The Latter Works, 1925-1953, Vol. 12*. Ed. Jo Ann Boydston.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6.
- Garver, Newton. *This Complicated Form of Life*. La Salle, Ill.: Open Court, 1994.
- Johnson, Mark.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Lakoff, George.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 Putnam, Hilary.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Quine, W. V. O.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 Turner, Mark. *Reading Minds: The Study of English in the Age of Cognitive Sci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Varela, Francisco, et al.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1991.